



광주체전 스타 총집합

■ 역도

장미란이 26일 태국 치앙마이 치앙마이체육관에서 열린 2007세계역도선수권대회 여자 역도 최중량급(+75kg급)에서 '금빛바벨'을 들어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 세계新 번쩍 든 장미란 온다

세계스타 파워·함성에 시선 쏠릴 듯  
'포스트 장미란' 이애라 새 기록 도전

지난 26일 2007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열린 태국 치앙마이 체육관. 여자부 최중량급(+75kg급)에서 대회 3연패에 도전중인 장미란(24)과 최대 라이벌 중국의 무상샹(23)이 맞붙었다. 무상샹은 2006 도하아시아게임에서 장미란을 누른 세계 여자역도의 최강자. 장미란은 이날 인상에서 138kg을 기록, 무상샹(139kg)보다 1kg 뒤져 불안하게 출발했다. 인상에서 1kg이 뒤진 장미란은 무상샹보다 1kg 이상 더 들어야 용상 뿐 아니라 합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들은 1차 시기에서 나란히 171kg을 드는 데 성공했다. 2차 시기를 먼저 시도한 무상샹은 이어 177kg을 기록했고, 장미란은 곧이어 플랫폼에 올라 178kg을 들어 올렸다. 무상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면서

3차 시기에서 모험 수인 180kg을 신청했고 이마저도 들어 버리고 말았다. 여섯 차례 모두 성공한 것이다. 초조한 장미란에게는 더 이상 다른 카드가 남아 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시기에서 181kg을 신청했다. 자신이 지난해 5월 세운 한국 신기록(180kg)보다 1kg이 더 나가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이다. 장미란은 몸무게가 115.17kg으로 무상샹(135.6kg)보다 약 20kg이 덜 나가는 탓에 무상샹의 인상·용상 합계인 319kg만 들어올리면 이기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대회 마지막 여자부 선수로 플랫폼에 다시 선 장미란은 평소보다 시간을 끌어 관중의 조조함을 자아낸 뒤 끝내 바벨을 번쩍 위로 들어올렸다. 코칭스태프는 '와~'하는 탄성을 질렀고 경기장은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회 3연패 위업을 이룬 세계적인 역사(力

士)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세계 여자 역도의 스타 장미란이 오는 10월 8일부터 열리는 제 88회 광주 전국체전에 참가, 세계적 수준의 경기 감각을 다시 한번 뽐낸다.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장미란은 키 170cm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안정감과 순간적인 집중력도 다른 역도 선수보다 월등해 고교 때부터 국내에서는 적수가 아예 없다. 장미란 외에도 '포스트 장미란'으로 떠오른 17세 소녀 이애라(광주)의 '금빛바벨' 들기를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 '여고생 역사'로 유명한 이애라는 2007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여자 역도의 유망주다. 지난 8월에는 제18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역도대회 고등부 75kg급에서 인상 101kg을 들어올려 한국주니어(20세 이하)신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내달 8일부터 13일까지 광주 정광고등학교 체육관을 찾아가면 장미란 등 세계적 역도 스타들을 만날 수 있다. 역도는 매일 오전 10시~오후 7시까지 열린다. 대회 마지막날인 오후 3시에 경기가 끝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세계선수권서 세계 기록 깬 장미란 포상금은 얼마?

고양시청서 3천여만원  
역도연맹서 특별격려금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24·고양시청·사진)이 지난 26일 2007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용상과 합계 2관왕에 오르면서 국내서 받게 될 포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미란은 지난 26일 태국 치앙마이 치앙마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여자 역도 최중량급(+75kg급)에서 인상 138kg, 용상 181kg 등 합계 319kg을 들어 올렸다. 또 대한역도연맹도 장미란에게 특별 격려금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고양시청만 큼 지급할 형편은 못된다. 포상 규정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상(135.6kg)보다 약 20kg이 덜 나가는 탓에 정상에 올랐다. 한국 역도 사상 세계선수권대회를 세 차례나 석권한 선수는 장미란이 유일하고 이 대회 3연패는 세계 역도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금자탑이다. 특히 장미란의 합계 319kg은 자신이 지난해 5월 원주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세운 종전 합계 세계기록(318kg)을 1kg 늘린 것이다. 이에따라 장미란에게 전달될 포상금은 예전보다 더 두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미란의 소속 팀인 고양시청은 포상금으로 3천만여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대한역도연맹도 장미란에게 특별 격려금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고양시청만큼 지급할 형편은 못된다. 포상 규정도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다만 1kg 기록 경신에 대한 포상금이 약 20만원으로 내부 방침으로 돼 있을 뿐이다. 역도연맹은 지난 해 5월 장미란이 인상과 합계 세계기록을 갈아치웠을 당시 격려금으로 300만원을 내놓아 세계 챔피언의 성과보수로 격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장성호 "3할 꼭 치겠다"

(10년 연속)

26일 현재 타율 0.285...최근 타격감 회복  
남은 8경기서 최소 5할 쳐야 대기록 가능

"3할타 포기는 없다." 10년 연속 3할타율에 도전중인 장성호(30·KIA·사진)는 27일 광주 현대전에 앞서 "3할 타율 달성을 위해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포기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광주 두산전에서 한국프로 야구 사상 두번째로 10년 연속 20 2루타를 작성한 장성호는 "요즘 타격감이 좋다"며 대기록 달성에 대한 의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26일 현재 0.285의 타율을 기록중인 장성호는 앞으로 남은 8게임에서 경기당 4타석에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소 5할타를 쳐야만 3할타에 진입할 수 있는 힘든 상황이다. 시즌 막바지에 이른만큼 1루 5리를 채우는 게 쉽지않은 일이다. 다만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기록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는 게 그나마 감동이다. 김중모 KIA 타격코치는 "지난 여름 무릎부상 이후 체력 훈련을 못해 타격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들어 거의 회복한 상태"라며 "타격감도 상승세이고, 남은 경기에서 정상 컨디션만 유지한다면 3할타로 올라서는 것도 불가능

한 일은 아니다"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김 코치는 그러나 "다만 중심타선이다 보니 상대 투수들의 견제가 심하고, 남은 경기수가 너무 적은 게 걸림돌"이라면 서 "페이스가 조금만 더 빨리 올라왔더라면 3할타율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텐데..."라며 아쉬움도 남겼다. 김 코치의 말처럼 3할타율을 달성하기엔 남은 기회가 너무 적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대기록이다. 무려 9년 동안이나 3할타를 유지해 온 그이기 때문이다. 10년 연속 3할타는 그동안 삼성 양준혁만 유일하게 도전했다 실패한 어려운 기록이기도 하다. 장성호는 "기록에 연연하기 보다는 매 타석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 그러면 기록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니겠느냐"며 3할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李의 '二夢'



이기 때문이다. 이승엽의 우승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소속팀의 리그 선두 수성에 갈림길이었던 26일 주니치와 라이벌전에서 천금 같은 동점 홈런을 터뜨리고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이승엽은 인터뷰에서 "두 경기만 남아 있지만 모두 이겨서 이곳(도쿄돔)에서 (우승) 행가례를 치겠다"고 말했다. 주니치의 오치아이 히로미쓰 감독이 리그 2연패 우승 축배를 드는 걸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말을 지키고 싶어 서다. 이승엽은 개인 성적에서도 3년 연속 30 홈런 달성에 단 1개만을 남겨뒀다. 국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2003년 아시아 홈런신기록(56개)을 세운 뒤 일본 무대에 진출한 첫해인 2004년 지바 롯데에서 홈런 14개에 그쳤지만 2005년

이승엽의 우승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소속팀의 리그 선두 수성에 갈림길이었던 26일 주니치와 라이벌전에서 천금 같은 동점 홈런을 터뜨리고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이승엽은 인터뷰에서 "두 경기만 남아 있지만 모두 이겨서 이곳(도쿄돔)에서 (우승) 행가례를 치겠다"고 말했다. 주니치의 오치아이 히로미쓰 감독이 리그 2연패 우승 축배를 드는 걸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말을 지키고 싶어 서다. 이승엽은 개인 성적에서도 3년 연속 30 홈런 달성에 단 1개만을 남겨뒀다. 국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2003년 아시아 홈런신기록(56개)을 세운 뒤 일본 무대에 진출한 첫해인 2004년 지바 롯데에서 홈런 14개에 그쳤지만 2005년

- ① 팀 센트럴리그 우승
- ② 3년 연속 30 홈런포

홈런 30개를 채웠고 요미우리도 옮긴 지난 해 41개의 아치를 그렸던 것. 짜릿한 손맛을 본 이승엽이 남은 두 경기에서 홈런을 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승엽은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24일 주니치전에서 시즌 28호 타포를 포함해 4타수 3안타의 맹타를 휘둘렀고 이를 만인 26일 같은 팀과 경기에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1점 홈런을 쏘아 올리는 등 4경기 연속 안타 행진 중이다. 특히 26일 주니치전 홈런은 상대 선발 야사쿠라 겐타의 몸쪽 141km짜리 직구를 오른손에 폴스윙으로 잡아당겨 오른쪽 스탠드 중간에 떨어질 정도로 대형이어서 30홈런의 기대를 부풀리기에 충분하다. 또 최근 4경기 성적도 홈런 2개 등 타율 0.375(16타수 6안타) 6타점의 불방망이를 과시하고 있다. 이승엽이 호호의 타격감을 앞세워 30홈런 고지를 밟으며 리그 우승까지 확정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우즈

## 맞대결

PGA 프레지던트컵 1R  
포섬 경기에서 맞상대

파트너는 월드매치플레이오프인업에서 우즈를 두 차례나 잡았던 닉 오현(호주)으로 결정됐다. 우즈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친동생처럼 아끼는 찰스 하웰3세(미국)를 첫날 동반자로 선택했다. 최경주가 우즈의 맞상대로 결정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 세계연합팀 선수 12명 가운데 올해 가장 두드러진 성적을 낸 최경주를 우즈와 첫날부터 맞붙이는 것은 플레이어 단장에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 최경주와 함께 '호랑이 사냥'에 나서서



최경주

하지만 승산은 반반이다. 일단 그동안 기록에서는 우즈를 앞세운 미국팀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우즈는 지금까지 프레지던트컵에서 10승9패1무승부의 뛰어난 성적을 올렸고 포섬 경기에서도 5승2패1무승부라는 혁혁한 전과를 남기는 등 '황제'다운 실력을 뽐냈다. 프레지던트컵에서 통산 3승2패의 성적을 낸 하웰3세도 포섬경기에서만 2승 무패의 좋은 실적을 자랑한다. 반면 최경주는 프레지던트컵에서 2승3패에 그쳤고 포섬경기에서는 2패에 그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